

사회를 변화시킨 기술과 문화의 역사

다빈치에서 인터넷까지

토마스 J 미사 지음

오늘날의 물질문명과 일상생활의 이기(利器)는 르네상스 시대 이후 산업혁명을 거쳐 발전을 거듭해온 과학기술의 덕택이다. 반면 제국주의의 비이성적 전쟁과 같은 폐해도 만만치 않다. 앞으로 과학기술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토마스 J. 미사 미국 미네소타대학 교수가 최근 펴낸 '다빈치에서 인터넷까지'는 이러한 궁금증에 대해 길라잡이를 한다.

'기술은 어떻게 사회와 역사를 변화시켜 왔는가'라는 부제를 단 이 책에서 저자는 궁정시대의 기술(1450~1600), 상업시대의 기술(1588~1740) 등 10개 항목으로 나눠 르네상스 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1500/1600/1700
1800/1900/2000

다빈치에서 인터넷까지

레네상스기 이태리 궁정과 도시 국가들은 과학기술자들에 재정적으로 후원했다. '르네상스 맨'으로 불리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그중 한 명이었다.

그는 예술뿐만 아니라 건축·수학·과학·음악·철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한 천재적 인물이었지만 대형 인력배수에 폭 12m 이상의 석궁 4개를 장착한 군사적 무기도 고안했다. 다빈치를 비롯한 당시 과학기술자들은 자신들을 후원

하는 궁정과 도시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도시건설과 귀족오락, 궁정의 위엄을 알릴 수 있는 일 등을 수행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은 '대체 불가능한 필수 인적 자원'으로 여겨졌다.

독일 구텐베르크의 활자 인쇄물은 학문 연구와 종교활동, 기술을 급격히 변화시키는 커다란 원동력이 됐다.

17세기 초 스페인에서 독립한 네덜란드는 특수 선박을 건조해 해양무역을 선점, 전성기를 누렸다. 이러한 밑바탕에는 기존 범선에 비해 작았지만 튼튼했고 적은 인력으로도 운용할 수 있었던 '플루트(Fluyt)' 범선이 있었다. 상품거래와 외환은행, 주식거래 등 현대의 경제적 개념은 네덜란드에서 만들어졌다.

1870년 영국은 식민지화한 인도를 행정적·군사적으로 지배하기 위해 런던과 인

도를 연결하는 해저 전선을 설치했다. 전보와 철도 증기선과 같은 제국주의 시대의 기술은 제국을 유지하는 생명선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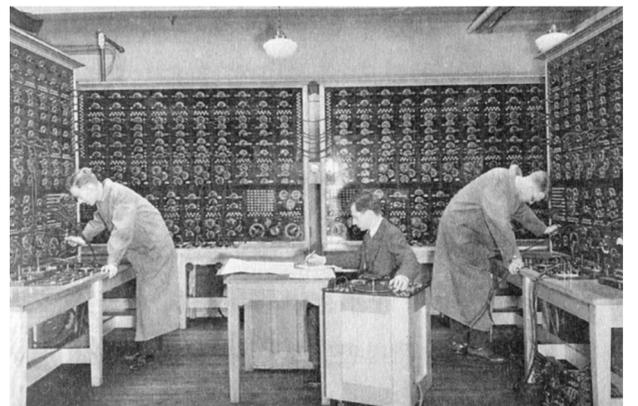
1945년 8월 6일 미국은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했다. 하지만 과물같은 새 폭탄은 세계 최고의 물리학자를 비롯한 13만여명의 인력과 20억 달러의 비용이 투입된 '맨해튼 프로젝트'의 결과물이었다. 원자폭탄은 2차 세계대전을 종식시켰지만 새로운 냉전의 문을 열었다. 또 인터넷의 발달에 따라 이제 '사이버 전쟁'이 지상과 해상, 공중, 우주에 이은 5번째 영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21세기 과학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경제통합과 문화화합, 정보기술로 직조될 평화로운 세계라는 장밋빛 미래는 끝날까? 결국 우리 사회의 내일이 어떠한지는 우리가

를 연결하는 해저 전선을 설치했다. 전보와 철도 증기선과 같은 제국주의 시대의 기술은 제국을 유지하는 생명선이었다.

1945년 8월 6일 미국은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했다. 하지만 과물같은 새 폭탄은 세계 최고의 물리학자를 비롯한 13만여명의 인력과 20억 달러의 비용이 투입된 '맨해튼 프로젝트'의 결과물이었다. 원자폭탄은 2차 세계대전을 종식시켰지만 새로운 냉전의 문을 열었다. 또 인터넷의 발달에 따라 이제 '사이버 전쟁'이 지상과 해상, 공중, 우주에 이은 5번째 영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21세기 과학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경제통합과 문화화합, 정보기술로 직조될 평화로운 세계라는 장밋빛 미래는 끝날까? 결국 우리 사회의 내일이 어떠한지는 우리가



MIT의 네트워크 분석기. 1920년대부터 사용해 1953년 해체되기까지 과학과 시스템 시대를 대표하는 발명품이다. <글램북스 제공>

선택한 기술에 의해 결정된다.

저자는 결론에서 "개척가와 사회운동가, 시민집단은 미래를 주도할 이 강력한 도구(기술)를 작동시킬 방법을 찾아야 한

다. 기술은 세계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글램북스·2만7000원>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살고 싶어서 아픈 '마음의 병' '누군가' 나를 알고 있다는 위안

당신이라는 인정제

김동영·김병수 지음

올 들어 부쩍 많이 출판되는 게 '마음'에 관한 책들이다. 오래전 출간된 소설가 김형경의 '사람 풍경'처럼 자신의 속 마음을 너무도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이야기를 풀어가는 책들은 독자들에게 훨씬 깊숙이 다가온다. "저 사람이 이런 마음 상태에서 살아왔구나"하며 놀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다들 비슷한 고민들, 다들 비슷한 아픔을 안고 있구나"하는 생각에 위안이 되기도 한다.

'아마도 이자람랜드' 드러머 출신이자 여행 산문집 '너도 떠나 보면 나를 알게 될거야', '나만 위로할 것'으로 알려진 김동영에게 깊은 마음의 병이 있다는 사실 역시 놀라웠다. 그는 갑자기 자신에게 다가온 공황장애, 조울증 불안의 감정으로 오랜 시간 아팠다.

우연한 기회에 서울아산병원 정신과 전문의 김병수를 만나게 됐고 오랜 기간 그와 꾸준히 만나며 많은 이야기를 나눈다. 김병수는 '흔들리지 않고 피어나는 마음은 없다', '버텨낼 권리' 등의 책을 펴냈고 '남자



의 자작' 등 TV와 라디오에서 상담을 진행하기도 했다.

김동영은 그와의 대화 속에서 자신을 잘 알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에 큰 위안을 받았고 그 이야기들을 책으로 엮어냈다.

두 사람이 펴낸 '당신이라는 인정제'는 7년간 한달에 한두차례 만나며 나눴던 수많은 대화를 담고 있다.

"끝이 없는 고통은 없다"는 김병수의 말을 듣고 싶었던 김동영은 자신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들에 대해,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를 풀어놓는다. 이에 답하는 김병수의 글은 단순한 의학적 처방이 아니다. 그 역시 진솔한 이야기를 함께 털어놓고 편안하게 대화를 이끌어 나간다.

김동영이 책 속에서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은 어쩌면 우리들도 한번쯤 마음에 담아봤을 것들이다.

<달·1만6000원>
/김미은기자mekim@kwangju.co.kr

의 자작' 등 TV와 라디오에서 상담을 진행하기도 했다.

김동영은 그와의 대화 속에서 자신을 잘 알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에 큰 위안을 받았고 그 이야기들을 책으로 엮어냈다.

두 사람이 펴낸 '당신이라는 인정제'는 7년간 한달에 한두차례 만나며 나눴던 수많은 대화를 담고 있다.

"끝이 없는 고통은 없다"는 김병수의 말을 듣고 싶었던 김동영은 자신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들에 대해,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를 풀어놓는다. 이에 답하는 김병수의 글은 단순한 의학적 처방이 아니다. 그 역시 진솔한 이야기를 함께 털어놓고 편안하게 대화를 이끌어 나간다.

김동영이 책 속에서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은 어쩌면 우리들도 한번쯤 마음에 담아봤을 것들이다.

<달·1만6000원>
/김미은기자mekim@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멸종하거나 진화하거나**=인간 진화의 역사를 재해석한 로빈 던바의 놀라운 시나리오. 저자는 '어떤 종이 인간이 되었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 길로 접어들었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한다. 책에는 우리가 되어가는 이야기가 담겨 있다. 왜 그들이 거기서 살아야 했고, 또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를 살펴본다. 지구에서 사라져간 이유가 무엇이고, 지금까지 큰 뇌와 복잡한 몸매를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 일 부일처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근원적인 이유를 담았다. <반디·1만9000원>

▲**공부 중독**=공부만이 답이라고 믿는 이들에게 전하는 책. 이 시대의 성공 판타지, 공부라는 만능키를 두고 사회학자 엄기호와 정신과 의사 하지현이 만났다. 저자들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걱정과 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 사회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있었다. 공부 중독 사회라는 현상이 그것이었



다. 블랙홀이 2015년 현재의 대한민국을 어떻게 계절스럽게 잠식하고 있는지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답을 제시한다. <위고·1만3000원>

▲**워렌 버핏의 위대한 동업자, 찰리 멩거**=워렌 버핏의 동료이자 정신적 지주 찰리 멩거의 지혜를 들여다본다. 책의 의도는 좀 더 찰리 멩거처럼 생각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것이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회장 워렌 버핏의 유일한 동업자이자 존경하는 친구인 찰리 멩거가 '가치투자란 무엇인가'를 말해준다. 워렌 버핏이 답해준 초와 같은 주식이나 줌과 다닐 때 위대한 투자의 길로 인도해준 것으로 유명한 찰리



멍거는 벤저민 그레이엄이 말한 '현명한 투자자'의 혁신이나 다름없다. <처음북스·1만6000원>

▲**음식에 담긴 인문학**=우리가 흔히 먹고 마시면서도 미처 몰랐던 음식에 관한 이야기를 담은 책. 음식의 유래와 역사뿐만 아니라, 음식 안에 투영된 우리의 삶과 문화를 엿볼 수 있다. 중국에서 날아온 자 장면이 어떻게 대한민국 대표 대중음식이 되었는지, 북반 삼계탕으로 이열치열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영광굴비의 고향이 사실은 영광이 아니라는 사실까지 음식에 담긴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가득 담겨 있다. <매일경제신문사·1만3000원>



▲**마흔은 어떻게 단련되는가**='공자가 청춘에게'를 통해 불안한 청춘들에게 난관을 던지고 일어서는 법을 전해준 저자가 이번에는 제2의 젊음노도를 겪는 마흔의 사람들을 위해 동양고전을 재해석했다. 지금까지 살아온 길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길을 다져나가야 할 마흔. 인생의 한 가운데에서 다시 한 번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아야 할 마흔을 위한 동양고전 속 가르침을 저자의 새로운 해석을 통해 책에 담았다. <위즈덤하우스·1만2800원>

▲**자연의 예술가들**=오스트레일리아의 정치사는 파란색 깃털, 파란색 플라시 스펀, 파란색 조개껍질 등을 모아 오랜 시간 정자를 빚는다. 처음에는 쓰레기더미로 착각했던 것이 정자새가 공들여 만든 예술작품임을 알아본 저자는 오래전부터 그를 사로잡아 온 질문 하나를 꺼내든다. '예술은 과연 인간에게만 허락된 축복일까?' 아름다움이라는 시선으로 자연의 풍성함과 다양성을 밝히는 책은 우리가 알아야 할 자연의 신비가 여럿히 많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구리·2만5000원>



▲**창개구리**=1만원

▲**크리스마스 선물**=이순원 그림책 시리즈. 김지민 그림작가가 기발하고 재미있는 상상으로 이순원 작가의 글에는 나오지 않는, 또 하나의 크리스마스 미담을 그림으로 발명했다. 무엇보다 놀라운 사

어린이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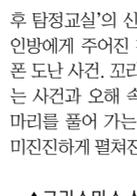
▲**용이 되고 싶어요**=할아버지가 들려주는, 할머니가 말하는 지혜로운 이야기. 광주여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동화작가 김병화의 창작동화집. 조상들이 만든 옛이야기를 오늘 우리 어린이들에게 알맞게 새로 만들었다. 우리가 만나 보지 못한 아버지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아버지가 해준 이야기를 그대로 듣는 듯하다. <도서출판 나라년·1만3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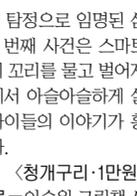
▲**방과후 탐정교실**=증거를 찾을수록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사건을 파헤쳐 나가는 탐정들의 모험 이야기. 올해 '방과



후 탐정교실'의 신인 탐정으로 임명된 삼인방에게 주어진 첫 번째 사건은 스마트폰 도난 사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벌어지는 사건과 오해 속에서 아슬아슬하게 실마리를 풀어 가는 아이들의 이야기가 흥미진진하게 펼쳐진다. <청개구리·1만원>



▲**크리스마스 선물**=이순원 그림책 시리즈. 김지민 그림작가가 기발하고 재미있는 상상으로 이순원 작가의 글에는 나오지 않는, 또 하나의 크리스마스 미담을 그림으로 발명했다. 무엇보다 놀라운 사



실은 산타 뱀과 루돌프를 등장시켜서 새로운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만들었다는 점이다. <북극곰·1만5000원>

▲**스타워즈**=루카스필름과 함께 '스타워즈' 새로운 시리즈의 귀환 소식을 알린 디즈니에서 영화 개봉에 맞춰 어린이들을 위한 맞춤형 그림책 시리즈를 펴냈다. 새로운 희망, 제국의 역습, 제다이의 귀환까지 '스타워즈' 원작 3부작에 해당하는 이야기를 한 권에 담아냈다. 미취학 아동을 위한 디즈니의 야심작이다. <문학수첩·1만2000원>

실은 산타 뱀과 루돌프를 등장시켜서 새로운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만들었다는 점이다. <북극곰·1만5000원>

▲**스타워즈**=루카스필름과 함께 '스타워즈' 새로운 시리즈의 귀환 소식을 알린 디즈니에서 영화 개봉에 맞춰 어린이들을 위한 맞춤형 그림책 시리즈를 펴냈다. 새로운 희망, 제국의 역습, 제다이의 귀환까지 '스타워즈' 원작 3부작에 해당하는 이야기를 한 권에 담아냈다. 미취학 아동을 위한 디즈니의 야심작이다. <문학수첩·1만2000원>

개업·성업 안내

작은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마음 축산
북구 두암동 라인동산@암
최고급 한우를 최소가격으로 판매
등갈비, 포천식 왕갈비, LA갈비
선물용 포장가능
대표 김진선 ☎062)251-8892

대박당구클럽
북구 각화동 주공@정문영 2층 (구,백제당구장)
최신형 할리우드 열선 다이얼식 완비
국제식 대대 설치보유, 쾌적한 공간 최선의 서비스
초보자 일대일 사정님 개인지도
☎010-3637-9123

해택을드라는기업(주)JK상조
서구 상무중앙로 28번길4
(세진빌딩 704호)
직영장례식장 운영(무등장례식장,
만평장례식장, 해피부장례식장)
이성희 ☎010-8542-3366

오리나라만세
북구 중흥동 333-26번지
(전대정문에서 50미터 지점)
약오리, 윗오리, 오리탕, 오리주물럭,
오리로스구이, 아구찜, 아구탕
☎062)522-7333

등양철학원
동구 불로동 11-2 (평화시당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 함.
☎062)224-7687, 010-2611-7687

르로제꽃
북구 용봉동 425-2번지
(용봉동 개인택시 신협 옆)
꽃향기 감촉 선풍이
매일 가득한 감성 꽃집
대표 박정호 ☎062)413-7673

다미울
북구 풍향동 백림약국 건너편
천연염색의류, 인테리어 소품, 의상 지수 수선
한복수, 미크수, 한우 예쁜 자수리품
26년 경력 의류 지수
☎010-8261-5205

미정
동구 금남로2가(구)동구청 뒤
옛날 구미향
계절 생선회, 일식전문
대표 김봉식 ☎062)236-3177

한국기담명리철학학회
북구 우산동 205-18번지 근린공원옆
개인단체 환영, 강의내용, 사주, 음력,
양력, 사주학, 수지침, 수족침, 이침
☎062)432-1324

현대힐스테이트공인중개사
북구 각화동 224-(1)2층
토박이가 운영하는
토지 및 상가 전문 중개사무소
☎062)511-1161, 010-7723-120

신신예술의집
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062)222-1936

천수사백마장군
북구 중흥동800-28 동부교육청일방로
인생상담, 명점, 사주, 궁합, 부적
영으로 봅니다
대표 허길배 ☎010-2828-2008

광주척추신체교정원
계림동 마사회 건너편 2층
카이로프랙틱, 신경질환
목, 허리 디스크, 협착증
사지관절 손발저림증상, 전신경락
원장 박재남 ☎010-8827-7799

놀부부대찌개문화전당점
동구 광산동 56-1 (번지유의상실옆)
부대찌개, 찜닭구이
점장 최은진 ☎062)222-9290

고전방
동구 공동 34-4(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062)224-4869

토산철학원
북구 두암동 에덴산부인과 정문옆
작명, 개명, 사주, 신수
궁합, 택일, 상호명 개인지도함
대표 이태연 ☎010-4106-5055

똥이레
동구 대의동 10-1
바다장어, 쭈꾸미, 불장어, 사브사브,
돌판볶음, 소금구이, 양념구이, 계절떡국
대표 윤영희 ☎062)234-7949

박당화랑
동구 공동 51-18번지 예술의 거리
한국화, 서양화 매매 및 감정
대표 박환승 ☎062)222-6866

이가회관
서동구 금남로2가 충장동사무소 뒷길
백반, 생태탕, 대구탕, 아구찜, 낙지볶음
각종생선조림, 단체모임예약환영
대표 이복례 ☎062)224-1541

블르메플라워샵
동구 공동 67번지
(예술의거리 중앙초교담당옆)
경조화환, 동·서양관, 꽃바구니, 꽃다발
대표 김봉식 ☎062)236-3177

광주화랑
동구 공동 예술의거리
동·서양화 매매 및 무료감정
고급표구 제작판매
대표 박종환 ☎062)232-4784

구수향
동구 예술의거리 원불교 건너편 골목
생고기 비빔밥 전문, 정동여탕,
한방오리, 오리로스, 예약손님 환영
☎062)224-7687, 010-2611-7687